

해남군-고려대 사범대학, 교육봉사 업무협약 체결

해남군과 고려대 사범대학은 지역 작은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봉사단을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고려대 사범대학, 해남교육지원청, 한국새농민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교육봉사단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해남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김성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조영천 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국새농민중앙회 김안석 회장이 참석했다.

고려대사범대학은 재학생으로 구성된 교육봉사단 '쿠셈(KU:CEAM, Korea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Academic Mentors)'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학기 중 월 4회(회당 1시간씩) 온라인으로 국어·영어·수학을 비롯한 교과목을 1:1로 학습지도할 계획이며,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에게 학습 방법 및 전략, 상담 등이 이뤄

질 계획이다. 방학 중에는 1박 2일의 대면 멘토링을 통해 온라인 만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감을 통해 멘티-멘토간의 돈독함을 다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면지역 작은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추천받아 두륜중학교와 화산중학교를 선정했다.

김성일 고려대 사범대학장은 "지역인재 육성과 작은 학교 교육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사범대 재학생에게도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현관 군수는 "교육의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려대학교의 교육봉사단 운영은 땅끝의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학업 성취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봉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욱 기자



해남군과 고려대 사범대학은 지역 작은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봉사단을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고려대 사범대학, 해남교육지원청, 한국새농민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교육봉사단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 제공

고흥군, 개별공시지가 검증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35만 5천869필지로 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해 진행한다.

검증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 조사의 내용 및 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가균형 유지, 지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검증을 마친 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 공시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석 기자

완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시행

완도군이 청년 구직자들의 자립 기반 형성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19세~49세 미취업 청년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어학(8종), 한국사, 국가 자격증(국가 기술 자격증, 국가 전문 자격증)을 실제로 응시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당해 연도에 한 해 최대 2회 가능하며, 실제 결제한 응시료 비용을 1인당 합산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응시료 지원 시험은 ▲어학 8종(토익, 토익 스피킹, 토플, 아이엘츠, 오픽, 텬스, 지텔프, 플렉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국가 기술 자격

증 ▲국가 전문 자격증이 해당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해 3월부터 매일 1~10일에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방문하거나 이메일(ksm01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 다음 달 10일경 응시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된 자라 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군정정보-행정정보-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은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청년 드론 전문가 양성 및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운영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진도군, 농수특산물 포장재·택배비 지원

진도군이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7억원을 투입, 농수특산물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한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어업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 단체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종이박스, 플라스틱 용기, 파우치 등 포장재 제작·구매액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

다. 또 택배비 지원은 관내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단체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비 1건당 8천원내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이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농수산유통팀(540-1133).

군은 농산물 유통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수한 진도군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포장재·택배비 지원으로 상품 차별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장흥, 탐진강변에 18홀 규모 골프장 조성

장흥군이 올해 13억 원을 들여 탐진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에 개장하는 탐진강파크골프장은 공인규격을 갖춘 18홀 규모다.

장흥군은 파크골프장 개장에 앞서 '장흥군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 사용료 책

정, 시설물 운영 근거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파크골프는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 적정 활동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군에서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경기장이 부족한 편이다. /김정근 기자

관산파크골프장(9홀)을 제외하면 기존 폐교와 운동장을 활용한 경기장 2곳이 있을 뿐이다.

이곳 역시 회원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탐진강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이 좋고 토요시장과도 가까워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기대가 높다. /김정근 기자

보성군, 2023년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보성군은 최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 근로자 64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한상범 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실시됐으며 ▲산림사업의 특성,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유형, ▲산림사업장 안전장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처요령, ▲주요 임업 기계 장비 안전 작업 요령,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림사업은 이동 중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 작업 중 뱀, 벌 등의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로 인한 재해율도 높아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김윤성 기자

